



“우리 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깜짝 놀란다”

노조, 사장실 앞 집회서 투쟁의지 재확인

연합뉴스 노조는 22일 오전 본사 7층 사장실 앞에 모여 전날 전체 조합원 토론회에서 공유한 굳건한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병설 위원장은 “토론회는 연합뉴스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신감과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회사 측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했다. 많이 지쳤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조합원들의 의욕이 여전히 강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공 위원장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키는 박정찬 사장이 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25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본사 서관 8층에 모여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조합원들은 노사협상 상황과 상관없이 파업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집회에서도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힘을 얻었다는 소감이 많이 나왔다.

김일중 IT운영부 조합원은 “서로 지치고 힘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의외로 강한 열기에 힘이 생겼다. 연합뉴스 파업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대오를 잘 유지해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흠 사회부 조합원도 “토론회 전에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변함이 없었다. 회사 측이 작은 문제들을 부풀리더라도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영재 증권부 조합원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더 치열하게 대화하면서 앞으로 투쟁 방향에 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는 박 사장을 풍자하는 뜻에서 뒤돌아선 채 사장을 맞았다.

오전 9시15분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합원들의 뒷모습과 맞닥뜨린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건 또 뭐야?”라며 급하게 사장실에 들어갔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개사한 노래를 합창하고서 종로와 명동으로 10명가량씩 흩어져 시민들에게 파업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거리 선전전

